

#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 어휘적 접근\*

홍 재 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I. 머리말 - 기능동사의 개념과 특성

우리는 이 글에서 기능동사 *verbe support* 구문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어휘적 속성—술어명사와 기능동사의 어휘적 공기 *co-occurrence* 현상의 층위에서 실현되는—에 대한 관찰을 통해, 기능동사에 대한 어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바탕을 둔 방법론적 테두리 내에서 연구프로그램 형식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어휘적 접근방식이라 함은 어휘부 *lexique* 구축을 가장 핵심적인 언어학 연구작업으로 설정하는 언어표상모형을 총칭하며, 여기서 관찰·분석되는 대부분의 언어적 속성에 대한 어휘부적 표상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M. Gross의 어휘·문법<sup>1)</sup> *lexique-grammaire*, I. Mel'čuk의 결합·설명사전<sup>2)</sup>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및 G. Gross의 대상부류<sup>3)</sup> *classes d'objets* 구축의 방법론적 틀을 절충·통합하는 어휘부 구성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다.

우선 (1)-(2)의 표현들을 살펴보자.

- (1) ㄱ.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하였다.  
    ㄴ.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 (2) ㄱ.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  
    ㄴ. 형주의 현장상황-(<sup>?</sup>의+E) 보고  
    ㄷ. (형주에 의한+E) 현장상황-(의+E) 보고

(1)-(2)의 표현들은 '보고하는 행위'<sup>4)</sup>를 특징짓는 술어 *prédictat*가 각각 동사어휘범주

---

\* 이 연구는 1996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 연구비의 수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1) M. Gross (1975).

2) I. Mel'čuk *et al.* (1984), (1988), (1993).

3) G. Gross (1994), *Langages* 131 (1998).

4) 의미기술 또는 의미적 실체의 표기는 홑따옴표(' '), 이에 대응되는 언어요소는 밑줄( )을 사용하여 구별하기로 한다.

(보고하다)와 명사어휘범주(보고)로 투사되어 구성된 것이다. 이 경우 보고는 술어명사 nom prédicatif로 특징지어 진다. 이 글의 주제인 기능동사 개념을 예시하기 위하여 문제를 단순화시켜 본다면, 술어 ‘보고’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논항 argument을 취하는 3항술어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보고’(X, Y, Z)<sup>5)</sup>

X = 보고하는 사람

Y = 보고의 주제(또는 내용)

Z = 보고받는 사람

(1)의 표현들은 술어 ‘보고’와 그것이 지배하는 논항들이 동사 보고하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문의 사례를 보여준다. 제1논항은 주어로, 제2논항은 -에게 여격보어로, 제2논항은 (1) ㄱ에서는 목적보어로, (1) ㄴ에서는 사격보어로 실현되었고<sup>6)</sup>, 동사 보고하다에는 한국어에서 술어가 문장화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법범주(시상, 문의 양태 및 화계)를 실현시키는 선어말/어말어미 -였-다가 부착되었다.

이에 대해 (2) ㄱ-ㄷ의 표현들은 술어 ‘보고’가 명사어휘범주로 실현되고 이 명사를 핵 tête으로 구성되는 명사구의 사례가 된다. 이것들은 ‘보고’의 논항들이 술어명사구 내에 통사적으로 통합되어 실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sup>7)</sup>

5) 논항은 X, Y, Z의 변항으로 표기한다. X는 제1논항, Y는 제2논항, Z는 제3논항으로 구별된다.

6) -에 대해(서) [대하여]의 형태·통사론적 성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격표지인 조사로 분석한다. 또한 이 복합표지가 뒤따르는 명사구의 통사적 지위 —보어/첨어의 구별문제— 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나, (1) ㄱ-ㄴ의 보고하다구문의 경우에는 다음 i) ㄱ-ㄴ 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어분석을 채택하기로 한다.

i) ㄱ. 지혜는 춤스끼-(에 대해 + 틀) 근거없이 비판했다.

ㄴ. 기영이는 지혜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꼈다.

7) (1)과 (2)의 표현들은 동일한 술어-논항구조의 두 가지 언어적 실현으로 가정하고,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양상과 그 가능한 제약의 관점에서 두 유형의 표현이 보이는 대응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논항을 X, Y, Z의 변항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1)-(2)의 표현이 보여주는 동사 보고하다구문과 술어명사 보고구문은 각각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다. -에 대해(서)가 명사구 내의 통사논항 표지로 쓰이면 -에 대한의 형태가 된다.

ii) X-가 Z-에게 Y-(를 + 에 대해) 보고하다

iii) ㄱ. Y-에 대한 X-의 보고

ㄴ. X-의 Y-(<sup>?</sup>의 + E) 보고

ㄷ. X-에 의한 Y-(의 + E) 보고

이 표기방법은 여기서 문제삼고 있는 기능동사 구문의 통사표상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휘범주별 전문언어사전 편찬작업의 일환으로 술어명사 사전을 구축할 때, 이와 같은 표기방식은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구체적인 술어명사 사전에 대한 구상이나 명사사전에 통합된 술어명사의 사전적 기술의 단편적인 실례는 홍재성(1997)과 홍재성·박동인의(1998)을 참조할 것.

(2) ㄱ은 제1논항이 -의 보어로, 제2논항이 -에 대한 보어로 실현된 구문이고, (2) ㄴ은 제1논항이 -의 보어로 제2논항에 선행하면 제2논항의 표지는 영형태가 적절하고 -의는 부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구문이고, (2) ㄷ은 제2논항의 표지가 -의 일 경우, 제1논항은 -에 의한 보어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8)</sup> 우리는 (2) ㄱ-ㄷ과 같이 **하나 이상의 논항이 술어명사구의 보어로 실현된 경우를 통합명사구로** 지칭하고, **술어명사로만 구성된 분리명사구와** 대조를 시킬 것이다. 분리명사구의 예는 아래 (5) ㄴ이 보여준다.

또한 (2) ㄱ-ㄷ은 '보고'의 제3논항이 이와 같은 통합명사구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명사구 구성은 그 가용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2) ㄷ \*부장에 대한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sup>9)</sup>

(2) ㄱ-ㄷ의 명사구는 다음과 같은 동사/형용사 구문에서 다양한 통사위치에 자유로운 분포를 보일 수 있다.

- (4) ㄱ. 부장은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기다렸다.
- ㄴ.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가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 ㄷ. 형주에 의한 현장상황의 보고는 불필요했다.
- ㄹ. 참석자들은 형주의 현장상황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

(4) ㄱ-ㄷ의 문장은, 목적보어(기다리다의 경우)나 주어(계속되다, 불필요하다의 경우) 또는 사격보어(숙어구문 귀를 기울이다의 경우) 위치에 사태를 표상하는 명제적 내용이 논항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문, 다시 말해 술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이차술어의 성격을 지닌 동사/형용사 구문(그리고 숙어동사 구문)의 예를 보여주는데, 보고를 핵으로 하는 통합술어명사구는 바로 명제적 내용의 통사적 실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4) ㄱ-ㄷ은 의미론적으로는 단문이 아닌 복문—또는 이중명제적bipropositionnel 구문—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4) ㄱ-ㄷ의 통합술어명사구 위치에는 형주가 현장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명시적인 보문이 실현될 수도 있다.<sup>10)</sup> 한편 (1) ㄱ-ㄴ에 대하여 환언관계 paraphrase를 이루는 단문구성이 가능한

8) 이항술어 '사랑'을 핵으로 하는 명사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iv) ㄱ. Y-에 대한 X-의 사랑  
 ㄴ. X-의 Y-(<sup>\*</sup>의 + E) 사랑

9) 이러한 제약은 삼항술어인 연락, 통지, 제시등의 경우에도 관찰할 수 있는데, '약속'의 경우에는 제3논항의 명사구 통합이 가능하다.

v) Z-에 대한 X-의 Y-(<sup>''</sup>의 + E) 약속  
 부장에 대한 형주의 지지 약속

10) 기다리다 구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데, 문장 (5) ㄱ-ㄴ은 바로 이 점을 보여준다.

- (5) ㄱ.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 E) 보고를 하였다.  
 ㄴ.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 을) 보고를 하였다.

(5) ㄱ-ㄴ은 명사범주로 투사된 술어 '보고'가 의미적인 핵을 구성하며 그것이 지배하는 논항들만으로 문장이 구성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5) ㄱ-ㄴ은 단문으로 특징지워 질 수 있는데, 의미상 술어명사 보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이외에 (1) ㄱ-ㄴ과 대조되는 점 중의 또 하나는 동사 하다의 사용이다. 한국에서는 술어가 문장화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법범주의 표지인 -었-, -다가 명사에 부착될 수는 없다.

- (6)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을 보고-았다.

다시 말하면 명사범주의 어휘에는, 그것이 의미상 술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한국어 특유의 형태·통사론적 기제에 의해 시제/상/문의 양태 등의 문법범주 표지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정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들 문법범주가 규칙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들 표지를 받쳐주는 버팀목 support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요한데, (5) ㄱ-ㄴ의 문장에서 하다는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선택된 어휘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다는 기능동사 *verbe support*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때 선택된 하다는 어휘적 의미가 비어있거나 어휘 의미상 술어적 성격이 배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고유의 논항 구조를 지니고 일정한 통사구조에 대응되는, 달리 표현하면, 통사적 논항—주어와 보어—에 대해 선택제한을 가하고, 또 통사적 논항을 하위범주화하는 어휘적 동사가 아닌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5) ㄱ-ㄴ의 하다 구문을 특징짓는 주어/보어 위치에 실현된 의미논항의 영역 *domaine*/명사부류는 술어명사 보고에 의해 한정된 것이지, 동사 하다에 의해 제약받은 것은 아니며, 또한 이 하다 구문을 구성하는 통사적 논항의 수나 그 실현양상이 하다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sup>11)</sup> 그것은 한국어

vi) 부장은 형주가 현장상황-(에 대해 + 을) 보고-(하는 것을 + 하기를) 기다렸다.

(4) ㄹ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문이 가능하다.

vii) 참석자들은 형주가 현장상황을 보고하는 데에 귀를 기울였다.

11) 이러한 성격의 하다 동사의 가능한 구문은 대단히 다양한데, 그 중 몇 경우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viii) ㄱ. X-가 사망을 하다  
 ㄴ. X-가 Y-와 결혼을 하다  
 ㄷ. X-가 Y-에 참석을 하다  
 ㄹ. X-가 Y-를 사랑을 하다  
 ㅁ. X-가 Y-(를 + 에 대해) 연구를 하다

문장구성의 원리상 필수적인 통사적 술어위치를 채우는 일종의 허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5) ㄱ-ㄴ 문장의 특징적인 점은, (4) ㄱ-ㄴ과 대조적으로 보고의 의미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보고 명사구 외부에 실현된 것이다. (5) ㄱ의 경우는 제2논항의 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주지만, 제1논항은 (5) ㄱ-ㄴ 유형의 문장에서 술어명사구 속에 내재화 될 수 없다.

(7)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하였다.

(7)은 주어위치를 어휘적으로 보충하여도 정문으로 개선될 수 없다.

(8) \*기영이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한 형주의 보고를 하였다.

(4) ㄴ에서 한다를 일반어휘동사로 대치해 보면, 분리구성이 불가능함을 관찰할 수 있다.

(4) ㄴ'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 을) 보고를 (연기하였다 + 목살하였다)

여기서 (4) ㄱ-ㄴ 유형의 기능동사 구문이 지닌 두드러진 관찰적 속성을 잠정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9) 단일술어어휘 —이 경우는 단일 동사— 구문과 대응이 존재하고 그것과 환연관계를 이룬다.<sup>12)</sup>
- (10) 술어명사를 의미적 핵으로 —통사적으로는 후치사 -을이 뒤따르는 보어 위치에 실현되어 있다— 하는 단문을 구성한다.
- (11) 술어명사구는 통합구성/분리구성이 가능하다.<sup>13)</sup> 그러나 통합구성에는 제약이

- 비. X-가 Y-(를 + 에게) 의지를 하다
- 사. X-가 Y-(에게 + 와) 인사를 하다
- 오. X-가 Z-에게 Y-를 약속을 하다
- 자. X-가 Z-와 Y-를 교환을 하다
- 차. X-가 Z-와 Y-를 W-와 교환을 하다

한다 기능동사 구문의 좀 더 자세한 기술은 홍재성·김현권의(1997)을 참고할 것.

12) 이러한 진술은 최근의 생성문법적 연구의 가설과 달리 (1) ㄱ-ㄴ의 보고한다를 복합어 성격의 단일동사—한 단어—로 기술하는 분석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 한편, 보고한다가 파생어인가 합성어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파생어 분석을 택하는 한국어학의 전통적 관점과 대조적으로 보고한다를 맞보다나 욕먹다와 같이 N+V 구성의 합성동사로 특징짓는 분석을 채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13) 분리술어 명사구의 실현을 기능동사 구문의 본질적 속성으로 한정하고 엄밀하게 통사론적 관점에서 통합술어 명사구를 내포하는 구문을 비기능동사 구문으로 보는 분석을 배제하는

있어서 제1논항의 내재화는 불가능하다.

(12) 기능동사는 일반어휘동사와 달리 술어적 의미가 비어있다.

이 이외에 두 가지 속성만을 더 지적해 두기로 하자.<sup>14)</sup>

- 관계절과 속격보어의 대응

기능동사 구문은 술어명사를 핵으로 하는 관계절화가 가능한데, 이와 같은 관계절은 속격보어와 의미상 대응될 수 있다.

(13) ㄱ. 형주가 (하는 + 한 + 할) 보고 - 형주의 보고

ㄴ. 기영이가 (하는 + 한 + 할) 주장 - 기영이의 주장

ㄷ. 우석이가 (하는 + 한 + 할) 질문 - 우석이의 질문

- 양태부사/형용사의 대응

(4) ㄱ-ㄴ 유형의 기능동사 구문에는 자세히/자세하게와 같은 양태부사의 삽입이 가능한데, 이 부사는 술어명사구에 형용사의 관형형 형태로 통합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이와 같은 기능동사구문에서의 부사/형용사 수식어 성분 사이의 대응을 보여준다.

(14) ㄱ. 형주는 부장에게 (자세하게 + 자세히) 현장상황-(에 대해 + 에 대한 + 을 + E) 보고를 했다.

ㄴ.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 대한) 자세한 보고를 했다.

ㄷ. 형주는 부장에게 자세한 현장상황 보고를 했다.<sup>15)</sup>

우리는 술어 '보고'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어 표현 (1)-(2) 및 (5)의 자료에 한정하여 개략적으로 기능동사의 개념을 한정하고 기능동사 구문을 특징지어 보았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기능동사 구문의 연구 태두리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들을 다루기 위한 연구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보려는 것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어휘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14) 기존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기능동사 구문의 또 다른 속성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언급될 것이다.

15) 자세한이 현장상황과 보고 사이에 놓일 수 없음은 이 문장에서 현장상황 보고가 한 성분—제2논항이 내재화된 통합명사구—임을 보여준다. 자세한이 (14) ㄱ에서와 같이 부사로 실현되면, 보고를과 했다 사이에 분포될 수 있다. 그것은 보고가 분리명사구를 이루는 경우, 특히 그 논항 중 하나가 N-을의 형상을 갖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ix) ㄱ.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의 + E) 보고를 (자세하게 + 자세히) 했다.

ㄴ. 형주는 부장에게 현장상황-(에 대해 + 을) 보고를 (자세하게 + 자세히) 했다.

## II. 기능동사분석의 문제

기능동사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로 열거해보자.

- (15) 기능동사 구문의 존재는 범언어적 현상인가?
- (16) (ㄱ) 기능동사 개념에 전제가 되는 술어명사는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  
(ㄴ) 술어명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유형화할 것인가?
- (17) (5) ㄱ-ㄴ의 기능동사 구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ㄱ. -을로 표지된 술어명사구의 통사적 지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격보어/목적 보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위의 통사 성분인가?<sup>16)</sup>
- ㄴ. (5) ㄱ-ㄴ과 같은 유형의 구문에서 하다만이 유일한 기능동사로 분포되는가? 하다와 대치되어 기능할 수 있는 동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동사인가?
- ㄷ. (5) ㄱ-ㄴ과 같은 유형의 구문에서 술어명사가 의미적으로 지배하는 방향의 통사적 실현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없는가? 그러한 경우에 서술의 위치에 선택되는 동사 역시 기능동사로 특징지을 수 있는가?
- ㄹ. 술어명사가 N-를 이외의 통사 위치에 분포되어 단문을 구성할 가능성은 없는가? 가능하다면 그 때 선택되는 동사도 기능동사로 분석할 수 있는가?
- (18) (9)의 특징은 얼마나 일반적인가? 이 질문은 다음 ㄱ-ㄴ의 질문으로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또 (9)의 특징에 관련하여서는 ㄷ의 질문이 제기된다.
- ㄱ. 기능동사 구문에는 항상 단일술어어휘 구문이 대응되는가?
- ㄴ. 역으로 모든 단일술어어휘 구문에 대해 항상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다음 두 가지 하위 질문으로 분할된다.
1. 단일술어어휘에는 항상 술어명사가 대응되는가?
  2. 단일술어어휘/술어명사의 대응이 존재하는 경우 항상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가?
- ㄷ. 기능동사 구문/단일술어어휘 구문의 대응이 존재할 때 항상 환연관계가 성립되는가?
- (19) (5) ㄱ-ㄴ의 기능동사 구문이 보여주는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사이의 대응에

16) 이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N-를 기능동사 구문의 여러 제약적 속성—N-를의 대명사화 불가능성, 의문문/분열문에서 초점화 불가능성—이나, (5) 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이중(또는 삼중) N-를 기능동사 구문의 구조와 그 내부에서의 술어명사의 특이한 통사행태—이동제약, 수식어 첨가 제약, 관계절 형성제약 등—의 해명을 내포한다.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들 질문은 (17) ㄴ-ㄹ의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한 것이다.

- ㄱ. 모든 기능동사 구문에서 술어명사구의 분리구성이 가능한가?
  - ㄴ. 모든 기능동사 구문에서 통합구성/분리구성의 이중성을 관찰할 수 있는가?
  - ㄷ. 모든 기능동사 구문에서 통합구성은 가능한가? 통합구성에 제약이 있는가?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5) ㄱ-ㄴ은 제3논항이 통합되기 어려운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 ㄹ. 술어명사구의 분리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통사적 기제는 무엇인가?
- (20) 기능동사 구문의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사이의 대응과 관련하여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 ㄱ. 기능동사는 진정 술어명사의 논항에 대해 선택제약을 부과하지 않는가?
  - ㄴ. 기능동사는 그것이 실현되는 단문의 통사구조를 제약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좀 더 일반화하면 다음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술어명사의 논항의 통사적 실현양상은 무엇에 의해 지배되는가?
- (21)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연쇄의 어휘관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투명한 통사/의미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인가?
- (22) 기능동사는 진정 의미가 비어있는가? 의미를 담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성격/범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글에서는 (15)-(22)의 문제들 중 몇몇은 차후의 별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없이 특정 가설과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휘적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문제 (15)는 기능동사 가설을 수용할 때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광범위한 경험적/이론적 탐구가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특정 언어 내에서 기능동사 구문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그 언어의 통사·어휘적 특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리라는 것이다.

- (23) ㄱ. 명사/동사의 두 품사범주가 별개의 형태·통사론적 속성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다.
- ㄴ. 술어 의미가 명사와 동사 (또는 형용사) 별개의 범주로 실현된다.

(23) ㄱ의 속성은 대부분의 언어가 공유하는 일반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명사/동사의 구별이 불분명하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Salish어를 비롯한 일부 언어의 경우는 기능동사 구문의 부재를 예측할 수 있고, 술어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요소가 동일한 형태로 명사적 기능과 동사적 기능을 공유하는 중국어같은 언어에서도 기능동사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다(*Modèles linguistiques* VI-1, 1984).

현재까지 기능동사 구문의 존재가 확인된 언어들—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영어, 독



일어, 불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Malayalam어 같은 많은 인구어—은 명백히 (23) ㄱ-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어쨌든, 기능동사의 존재 유무나 그 어휘적 분포의 범위 등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유형론적 변이양상은 —기능동사의 존재와 그 언어를 특징 짓는 여타 형태·통사론적 속성 사이의 가능한 상관관계의 문제를 포함하여— 흥미 있는 연구과제라 생각된다.<sup>17)</sup>

문제 (16)은 기능동사 가설과 무관하게 그 동안의 언어학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한 언어의 실질적인 어휘부 구축을 위해 그것에 속하는 핵심적인 모든 술어명사를 목록화하여 어휘·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특징을 짓는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동사 범주와 연계시켜— 여전히 많은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된다.

문제 (19)-(20)은 근래 생성문법 계열의 언어학 논의에서 경동사light verb 가설 또는 복합술어complex predicate 가설의 관점으로 논의가 되어온 주제인데, 우리의 입장으로는 (17)-(18)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5) ㄱ-ㄴ의 하다 구문유형에 한정하여 순수하게 통사론적 논의를 제기하거나 통사론/의미론 사이의 대응을 분석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17)-(18)의 논의에 집중될 것이다.

우리는 기능동사의 확장된 개념을 수용하여 (17)-(18)의 문제를 검토하는 시각에서 기능동사 구문의 어휘적 기술의 정당성과 필요성의 경험적/관찰적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7)-(18)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채택하는 입장은 우선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24) ㄱ. (5) ㄱ-ㄴ 유형의 구문에서 -을 술어명사구는 대격으로 표지된 목적보어로 분석한다.
- ㄴ. 이러한 유형의 구문에서 서술어 위치에는 하다 이외에 기능동사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다양한 동사어휘가 분포될 수 있다.
- ㄷ. 기능동사 구문 내에서 술어명사의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은 (5) ㄱ-ㄴ 유형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 ㄹ. 술어명사는 N-를 이외의 통사위치—사격보어 또는 주어 위치—에 분포되어 기능동사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25) 기능동사 구문과 단일술어어휘 구문 사이의 대응에는 다양한 성격의 어휘적

17) 예컨대, 형용사의 형태·통사론적 속성이 명사와 유사한 라틴어, 불어, 독일어 또는 영어와 같은 언어—형용사·명사언어—에서는 형용사 구문에 실현되는 이른바 계사가 바로 기능동사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형용사가 동사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한국어 유형의 언어—형용사·동사언어—에서는 형용사 구문에 기능동사 역할을 하는 계사의 실현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용사 범주의 형태·통사론적 속성과 기능동사 구문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유형론적 보편성의 하나를 설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휘의미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제약은 범언어적 현상이며, 그 제약의 구체적 양상은 언어 특적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 이 두 구문 사이에 항상 환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24) ㄴ-ㄹ 및 (25)에 입각하여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기능동사 구문의 어휘적 실현양상을 탐구해 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또 한편 (21)-(22)의 문제에 대한 결론에 의해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21)이 제기하는 술어명사/기능동사 연쇄의 관계는 Gross의 어휘·문법이나 Mel'čuk의 결합·설명사전의 틀에서 설득력있게 실증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투명한 통사·의미 관계로만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전형적인 언어 collocation 관계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제한적 어휘결합 관계를 보이므로 어휘적 — 또는 어휘·통사적 — 기술이 필수적인 현상인 것이다. 기능동사 구문의 어휘적 실현 양상의 이러한 특징이 범언어적 일반성을 띠고 있음은 어휘부 중심적인 언어학 논의에서 충분히 지적된 바이다.

한편 기능동사의 의미기능의 문제 (22)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능동사는 일반어휘동사가 표현하는 술어적 성격의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보조동사가 표현할 수 있는 바와 같은 상이나 태—능·피동, 주·사동의 대립— 또는 부정이나 존칭과 같은 문법범주의 의미, 이른바 문법적 의미나 강조·핍하와 같은 문체적·공시적 connotatif 의미를 표현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III에서 기능동사의 유형을 살펴보고 IV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술어명사와 단일술어어휘 사이의 대응과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연쇄의 여러 제약적 양상을 지적해 본다. V에서는 한국어 어휘부 구축의 시각에서 기능동사 용법과 그 유형을 한정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 Ⅲ. 기능동사의 유형

기능동사는 다음과 같은 통사·의미적 변수에 따라 분류하여 특징을 짓고 또 그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다.

- 술어명사의 통사위치 (대격보어 / 사격보어 / 주어)
- 술어명사가 지배하는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양상 (제 1논항의 주어화 또는 사격보어화 등)
- 기능동사의 문법적·문체적 의미 (상, 태, 존칭, 사동, 부정 또는 강화, 핍하 등).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앞에서 제시한 확장된 기능동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다양한 기능동사를 유형화하고 이중적, 다중적 성격을 보이는 기능동사의 용법을 분

석하는 데에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개별 술어명사의 결합가능한 기능동사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것이다.

이 유형화 문제는 천착이 요구되는, 기능동사 연구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잠정적인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하는 데 그치려 한다.

가. 대격보어 위치의  $N_{pr}$ 과 결합가능한  $V_{sup}$

1. 표준기능동사

$N_{pr}$ (이하에서 술어명사는  $N_{pr}$ 로, 기능동사는  $V_{sup}$ 으로 약기한다)이 대격보어 위치에 분포하고 제 1논항이 주어화된 구문에 실현되는 기능동사를 편의상 표준기능동사로 칭한다. 이 유형은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기능동사가 존재하는 여러 언어에서, 기능동사 구문과 대응되는 단일어 자유동사/형용사 구문이 존재하는 경우, 두 구문 사이의 논항의 통사적 실현 양상이 대체로 평행적이며, 가장 빈번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표준기능동사로 지칭하는 것이다. 상이나 태의 실현에 있어서 중립적 또는 무표적non-marqué인 점에서도 그러한 지칭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1.1. 하다 및 그 문체적 변이형

표준기능동사의 대표적 형태는 하다이다. 상당수의 술어명사가 표준기능동사로 하다를 선택하는데, (26)에서 보듯이 이들은 하다 이외의 기능동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sup>18)</sup>

이와 같은 동사들은 의미가 비어있거나, 하다에 비해 더 표현적이거나 또는 강화·평화의 공시적 connotatif 의미만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여 하다의 문체적 변이형으로 묶을 수 있다.<sup>19)</sup>

18)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 많은 술어명사들은 하다만을 표준기능동사로 선택한다. 다음은 첫 음절에 단-에서 달-까지가 포함된 술어명사 중 이러한 속성을 보이는 예인데 이들이 사실 사전에 수록된 이 범위의 술어명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변화를 하다	다작을 하다	다짐을 하다	다툼을 하다
닭달을 하다	단결을 하다	단교를 하다	단념을 하다
단련을 하다	단명을 하다	단발을 하다	단산을 하다
단속을 하다	단수를 하다	단식을 하다	단언을 하다
단장을 하다	단전을 하다	단절을 하다	단종을 하다
단죄를 하다	단축을 하다	단판을 하다	단평을 하다
단합을 하다	단행을 하다	달리기를 하다	달성을 하다

19)  $N_{pr}$ 이 도맡이나 앞진등 이동행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이와 결합이 가능한 가다/오다는 화자가 연루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동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가다/오다를 기능동사로 분석할 때, 하다와는 의미기능에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야기를 나누다 구문에서 나누다를 기능동사로 분석할 때, 역시 하다와는 의미기능이나 통사행태의 면에서 차이가 있음이 관찰된다. 이야기를 나누다는 대칭구문만 가능하고 이야

- |                                    |                     |
|------------------------------------|---------------------|
| (26) 경례를 (하다 + 붙이다)                | 이야기를 (하다 + 나누다)     |
| 경비를 (하다 + 보다 + 서다)                 | 잘못을 (하다 + 저지르다)     |
| 계획을 (하다 + 꾸미다 + 세우다 + 짜다)          | 전화를 (하다 + 걸다)       |
| 노력을 (하다 + 기울이다 + 들이다 + 바치다 + 쏟아붓다) |                     |
| 조바심을 (하다 + 치다)                     | 대화를 (하다 + 갖다 + 나누다) |
| 주장을 (하다 + 펴다 + 펼치다)                | 사기를 (하다 + 치다)       |
| 도망을 (하다 + 치다 + 가다 + 오다)            | 장난을 (하다 + 치다)       |
| 질문을 (하다 + 던지다 + 꺼내다)               | 뒷걸음질을 (하다 + 치다)     |
| 참패를 (하다 + 당하다)                     | 득점을 (하다 + 올리다)      |
| 충성을 (하다 + 바치다)                     | 명령을 (하다 + 내리다)      |
| 침묵을 (하다 + 지키다)                     | 방해를 (하다 + 놓다)       |
| 파면을 (하다 + 시키다)                     | 벌을 (하다 + 주다)        |
| 폐쇄를 (하다 + 시키다)                     | 성공을 (하다 + 거두다)      |
| 합의를 (하다 + 보다)                      | 수속을 (하다 + 밟다)       |
| 혼수를 (하다 + 두다)                      | 신호를 (하다 + 보내다)      |
| 회진을 (하다 + 돌다)                      | 싸움을 (하다 + 벌이다)      |
| 훼방을 (하다 + 놀다 + 놓다)                 | 왕진을 (하다 + 가다 + 오다)  |

한편 표준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면서 하다를 선택하지 못하는 술어명사도 여럿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하다의 대체형으로 쓰이는 기능동사도 다양한데,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27) 가르침을 (*하다 + 베풀다 + 주다) | 수모를 (*하다 + 당하다 + 겪다)       |
| 개가를 (*하다 + 올리다)            | 시중을 (*하다 + 들다)             |
| 겉을 (*하다 + 먹다)              | 압력을 (*하다 + 넣다)             |
| 관심을 (*하다 + 갖다 + 보이다 + 쏟다)  | 연민을 (*하다 + 느끼다)            |
| 기지개를 (*하다 + 켜다)            | 영향을 (*하다 + 끼치다 + 미치다 + 주다) |
| 도움을 (*하다 + 주다)             | 오류를 (*하다 + 범하다 + 저지르다)     |

기를 하다는 대칭구문/비대칭구문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내재적 대칭술어명사인 대화 구문에서는 하다/나누다는 대칭구문의 구성만 가능하다.

x) X-가 Y-(\*에게 + 와) 이야기를 나누다

xi) X-가 Y-(에게 + 와) 이야기를 하다

따라서 표준 기능동사 하다와 그 변이형 동사와의 관계—특히 의미관계—is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술어명사 구문에서 이들 동사(가다, 오다, 나누다 등)가 기능동사로서의 기본적인 통사특성을 하다와 공유하고 있는 점과 그 의미특성이 어휘동사의 온전한 술어적 의미특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기능동사 분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만남을 (*하다 + 갖다)	원한을 (*하다 + 품다)
반란을 (*하다 + 일으키다)	정성을 (*하다 + 기울이다 + 들이다 + 쏟다)
불만을 (*하다 + 갖다 + 느끼다)	제사를 (*하다 + 드리다 + 지내다)
손해를 (*하다 + 보다 + 입다)	죄를 (*하다 + 저지르다 + 짓다)

여기서 기능동사 분석에 문제거리가 되는 동사들 중의 한 부류에 대해 간략히 지적을 해두자.

다음의 자료는 N<sub>pr</sub>을 대격보어로 선택하는 한자어N<sub>pr</sub>-하다의 구성을 갖는 일련의 복합동사의 예이다.

(28) ㄱ. 고문을 자행하다	공격을 강행하다
노력을 경주하다	배급을 시행하다
부검을 실시하다	연구를 수행하다
(영향력 + 압력)-을 행사하다	조사를 강행하다
ㄴ. 검토를 시작하다	관계를 유지하다
비판을 계속하다	수사를 (완결 + 종결)-하다

이들 동사들은 분리술어명사구의 분포가능성이나, 제 1논항의 동일성 (이들 동사구문에서 주어는 술어명사의 제 1논항과 일치한다) 및 또 다른 의미적 특성 (하다와의 유의성이나 상적 의미특성) 등을 고려하면 기능동사와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그러나 (29)와 같은 하다 (또 그 변이형) 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하고 (30) 유형의 명사구 구성이 가능한 점에서 기능동사로 분석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 (29) ㄱ. 공격을 감행을 하다
- ㄴ. 관계를 유지를 하다
- ㄷ. 수사를 종결을 (하다 + 짓다)
- (30) ㄱ. 공격의 감행
- ㄴ. 관계의 유지
- ㄷ. 수사의 종결

일반적으로 기능동사는 명사형에 대응되지 않는다.

- (31) ㄱ. \*(연구 + 공격 + 검토)-의 합
- ㄴ. \*대화의 나눔
- ㄷ. \*명령의 내림
- ㄹ. \*충성의 받침

따라서 (28) ㄱ-ㄴ 계열의 동사는 기능동사 분석의 관점에서 좀더 따져 보아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기능동사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 1.2. 상기능동사

표준기능동사 하다에 대하여 기동상이나, 반복·습관상, 또는 종결상 등 상적 의미를 표현하며, 여기에 강조·강화 또는 폄하의 공시적connotatif 의미가 첨가될 수 있다.

#### - 기동상의 표현

- (32) 거래를 트다  
관계를 맺다  
싸움을 걸다  
말을 꺼내다

#### - 반복상의 표현

- (33) (공격 + 공전)-을 거듭하다  
(경험 + 훈련)-을 쌓다  
(도망 + 이사 + 출장 + 왕진)-을 다니다  
(질문 + 욕)을 퍼붓다  
(칭찬 + 변명)-을 늘어놓다

#### - 습관상의 표현

- (34) (인신공격 + 비판)-을 일삼다

#### - 종결상의 표현

- (35) (거래 + 관계)-를 끊다  
공격을 (그치다 + 멈추다)

### 1.3. 존칭기능동사

표준기능동사 하다와 대조적으로 존칭의 의미를 표현하는 기능동사로 드리다, 올리다를 거론할 수 있다. 한국어의 존칭범주가 선어말어미 -시-나 종결어미 등 문법적 수단으로 실현되거나, 진지나 택 또는 모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 어휘형태로 실현되는 것과 평행해서, 기능동사구문에서는 바로 동사어휘형태로 표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다 또는 주다와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대응이 규칙적인 것은 아니다.

- (36) 감사를 (하다 + \*주다 + 드리다)

- 공양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 문안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 보고를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 불공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 연락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 인사를 (하다 + \*주다 + 드리다 + 올리다)
- 제사를 (\*하다 + 지내다 + 받들다 + \*주다 + 드리다)
- 질문을 (하다 + ?주다 + 드리다)

(39)의 자료에 의하면, 드리다와 결합이 가능한 Npr 중에서 대부분은 주다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드리다를 단순히 주다의 존칭형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사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다/되다의 관계나 하다/당하다, 하다/시키다 사이의 관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 2. 전환기능동사

이항 또는 삼항 술어의 성격을 갖는 명사가 대격보어 위치에 분포되고, 표준기능동사 구문에서와는 달리 대체로 비행위자의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제 2논항, 또는 제 3논항이 주어화되는 단문을 구성하는 기능동사를 전환기능동사로 지칭한다. 전환기능동사구문은 대체로 논항위치의 통사적 전환에 대응하여 피동구문과 유사한 의미해석을 갖게 된다. 한국어의 대표적 전환기능동사는 받다, 당하다인데, 하다의 경우처럼 여러 변이형이 존재하고, 또한 전환기능동사 구문이 가능한 술어명사라고 해서 모두 받다, 당하다와 결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 이항술어명사 구문

이 경우에 제 2논항은 술어명사구에서 분리되어 N-에게-(서+E), 또는 N-으로부터로 실현되거나 또는 그것에 통합되어 N-(으로부터+E)-의 보어로 실현될 수 있다. 다음은 단일동사 돕다에 대응되는 표준기능동사 구문과 전환기능동사 구문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 (37) ㄱ. 우석이는 지혜를 도왔다.  
 ㄴ. 우석이는 지혜에게 도움을 주었다.  
 ㄷ. 지혜는 우석에게-(서+E) 도움을 받았다.  
 ㄹ. 지혜는 우석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ㅁ. 지혜는 우석-(으로부터+E)-의 도움을 받았다.

이항술어명사의 표준기능동사 구문에서 제 2논항은 N-에게 보어 또는 N-를 보어